

농어촌공 경북본부, 경영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 윤석원 기자)

송고일시 : 2025-09-05 17:29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경영개선 아이디어 2차 심사 발표회.(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는 지난 3일 서선희 경북지역본부장, 심사위원 및 본부·지사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심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경북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영업손익 개선 및 청렴,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어를 제출받고 심사·선발해 공사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실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영개선 아이디어 2차 심사 발표회에 참석한 서선희 경북본부장, 심사위원 및 발표자들.(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총 6건의 경영개선 아이디어는 ▲영업손익 향상을 위한 보상수탁사업 활성화 방안 ▲고효율기기(인버터) 설치를 통한 양수장 전력비용 절감 ▲현장지원센터 노하우 전수로 조직문화 개선 ▲청사 재생에너지-바람을 타자 ▲영업손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공사 소유 농지를 활용한 농민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자들의 제안설명과 심사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쳤다. 창의성, 실현 가능성, 경제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했고, 이 과제들은 추가 검토·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농업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경영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신규사업 발굴, 예산확보, 청렴, 고객 만족 등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어야 우리 공사와 농어촌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농어촌의 발전 방안들을 꾸준히 토론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seok193@daum.net

Copyright ©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